

# '더 먹고 가' '칭찬밥상' 이금희 "연애할 때 퍼주는 스타일"

등록 2020.11.09 09:47:05



[서울=뉴스시스] MBN 예능 프로그램 '더 먹고 가(家)' 제1회 (사진= MBN '더 먹고 가' 제공) 2020.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이수지 기자 = MBN 예능 프로그램 '더 먹고 가(家)'가 시청률 2%대로 출발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 '더 먹고 가(家)' 제1회가 유료가입가구기준으로 전국 시청률 2.0%를 기록했다.

'더 먹고 가(價)'는 이날 방송 내내 MC들은 물론, 초대손님 이금희의 이름과 에피소드가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점령해 화제성도 입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임지호 셰프, 강호동, 황제성 등 MC 들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이들이 함께 생활할 집에 찾아온 첫 손님으로 국민 아나운서 이금희가 등장했다.

임지호는 서울 평창동 산동네 꼭대기 집을 새 보금자리로 소개하며 이곳을 거처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평창동이 조선시대부터 가뭄이 들면 창고에 있는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던, 풍요로운 동네"라며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내고, 아픔이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임지호는 촬영 전날 강호동의 고향인 마산 오동동에 내려가 각종 식자재를 공수했다. 그는 "(강)호동이 많은 국민에게 웃음과 힘을 주느라 애쓰는데, 그런 호동이를 치유하고 위로해 줄 힐링 밥상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한 상을 차렸다. "아버지의 정신과 어머니의 손길, 발길이 담겨 있는 요리"라는 설명에 강호동은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강호동은 아버지의 권유로 씨름을 하게 된 사연과 첫 천하장사가 된 날 전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목 놓아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때를 털어놓았다.

뒤이어 황제성이 등장했다. 임지호를 스승으로 삼아 창업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그는 임지호를 따라가 근처 야산에서 각종 들풀을 뜯어 배초향 차를 만들었다.

세 사람이 도심 속 자연에서 차 한 잔으로 힐링을 누리던 그때, 이금희 아나운서가 첫 번째 손님으로 나타났다. "20년 만에 예능에 출연한다"는 이금희는 MC들을 위한 온도계를 선물로 건넸다.

본격적으로 저녁 차리기를 돌입한 임지호는 삼색 가지 요리, 석류를 곁들인 돌돔구이, 된장을 품은 머위 싹밥 등을 선보였다. 이금희 역시 집 밖에서 강호동과 함께 소고기를 구웠고 두 사람은 방탄소년단(BST) 멤버들의 인성을 놓고 토크 배틀을 벌이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금희는 BTS의 팬임을 알리며 인성 좋기로 유명한 BST와 호흡을 맞춰본 강호동을 부러워했다.

이금희를 위한 '칭찬밥상'이 완성되고 임지호는 "이금희가 우리 국민의 애환을 달래준 목소리의 주인공 아니냐"며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은 밥상을 차려봤다"고 '칭찬밥상'을 설명했다.

이금희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요리들이라 매우 놀랐다"며 "돌동에 석류가 곁들여질지 누가 알았겠냐? 삶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뜻을 요리로 알려주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감동이 무르익는 순간, 임지호는 이금희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 이금희를 당황케 했다. 이금희는 침착하게 "좋은 사람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고 싶다"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결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애할 때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며 각종 에피소드를 방출했다.

식사 후 이금희는 '찹레꽃 우리 지호' '마시멜로 호동이' 눈이 큰 제성이'란 제목으로 이금희가 직접 세 사람을 생각하며 지은 책을 선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